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7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작 품 소 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p>사람에게는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다. 사랑, 분노, 즐거움, 기쁨, 욕심 등. 크게 말하면 좋고 나쁜 감정들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한가지, 꼭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p> <p>욕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독점욕, 정복욕 등. 인간은 욕심을 채움으로써 행복해지기도 하고 채우지 못함으로써 불행해 지기도 한다. 욕심을 채울 수 없기에 생겨나는 아픔들이 있기 때문이다.</p> <p>우리는 이러한 욕심에 대하여 청주시 명암동에 있는 ‘명암약수 설화’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한다.</p>
스토리 구성 (Plot)	<p>청주 고을 남들(현 수곡동)에 사는 박생원이 딸을 대머리(청주시 방서리)에 사는 한서방에게 시집보냈다. 행복하게 살던 부부는 자식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부인 박씨 부인이 자식을 가지고픈 마음에 지성을 드리다 병이 났는데, 종다는 약을 다 써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죽음에 이르게 된 박생원의 딸은 남편에게 친정으로 가서 지내다가 죽게 해 달라고 하였다.</p> <p>박생원은 사위 한서방과 상의한 끝에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딸을 데려다 놓은 박생원 내외는 딸을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딸의 병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천수사(天壽寺) 스님이란 분이 찾아와 시주할 것을 청하였다. 스님은 집안에 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 환자를 살핀 뒤에 말했다.</p> <p>“환자의 병은 마음에서 온 것이니,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서 백일 동안 정양(靜養)해야 합니다. 환자가 정양할 곳으로는 범발굴이 좋겠습니다.”</p> <p>이 말을 들은 박생원의 부인은 딸을 호랑이가 들끓는 범발굴에 데려다 놓는 것은 호랑이 먹이로 주는 것이라면서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생원은 딸의 병이 마음에서 온 것이라면 약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한다. 그래서 사위 한서방과 상의한 뒤에 숲 속 적당한 곳에 움막을 짓고, 딸을 데려다 놓았다.</p> <p>혼자 산에 남게 된 박씨 부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아프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고, 자식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첫 날 만나게 된 호랑이의 가르침과 샘물의 맑은 기운으로 박씨 부인은 몸을 회복하게 된다.</p> <p>다 죽어가던 박씨 부인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마셨다는 샘물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궁금함에 산에 올라 샘물을 먹어본 사람들은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영천(靈泉) 약수(藥水)임이 분명하다.”라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마시기 시작했다.</p> <p>허나 약수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이 샘물을 호랑이가 같이 마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신성한</p>

	<p>물을 한날 금수와 같이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샘가에 울타리를 새우고 장작불을 놓는 등, 호랑이를 쫓기 위한 싸움에 들어갔다.</p> <p>처음에는 호랑이를 포함해 샘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던 샘물은 싸움이 지속될수록 하루하루 말라갔다.</p> <p>호랑이와 샘물의 도움으로 병이 나은 박씨 부인은 이 싸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생각하며 그 싸움을 막기 위해 스님을 찾아간다. 스님은 샘물의 내력을 알려주면서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물이 완전히 마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p> <p>스님의 이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쁘게 샘터로 걸음을 옮기는 박씨 부인. 허나 이미 샘물은 완전히 말라 더 이상 솟아나지 않고 있었다.</p> <p>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에게 스님의 경고를 전한 박씨 부인은 사람들을 다독이며 ‘다시 이 샘에 맑은 기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자’며 자신들의 욕심의 흔적을 치워나간다.</p> <p>샘터가 거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p> <p>밤마다 신비로운 빛이 바위로 물려드는 것이었다. 이것을 샘이 회복되어가는 신호라고 여긴 사람들은 복구 작업에 더욱 열중하게 되고 마침내 샘에서 다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다.</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박씨 부인 : 정숙하고 참하며 내조를 잘하며 가정을 아끼지만 대를 잇고 싶은 마음에 치성을 하지만 결국 병을 얻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스님과 산신의 도움으로 명암약수를 먹고 병을 치유하지만 그로 인해 명암약수가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p> <p>한서방 : 부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애처가.</p> <p>박생원 : 여인의 아버지. 딸의 쾌유를 위해 범발골을 찾는다.</p> <p>천수사 스님 : 천수사에 있는 스님. 시주를 하러 왔다가 여인의 병을 고칠 방도를 가르쳐준다. 이로 인해 범발골에 명암약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p> <p>산신(호랑이) : 인적이 없는 범발골에 살고 있다. 여인의 등장으로 범발골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산신이 목을 축이는 명암약수를 차지하려는 과정에 자연이 파괴되자 인간들을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간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p> <p>덕수 : 명암약수를 차지하기 위해 샘 근처에 울타리를 쳐놓아 출입을 막는다.</p> <p>용호 : 덕수와 마찬가지로 명암약수를 차지하려고함.</p>

멀리서 보이는 울창한 숲. 고불고불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양 옆으로 곧고 길게 뻗은 나무들. 울창한 나무들 잎사귀 틈으로 햇빛이 점점이 내려앉는다. 나무들이 너무 많아 서늘하고 어두운 느낌까지 든다. 마치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 그 위를 계속 올라가면 호랑이를 닮은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틈 사이로 맑은 물이 줄줄줄 흘러 내려 샘을 이루고 있다. 바로 그때, 샘을 향해 자그마한 빛이 하나둘씩 날아들기 시작한다. 마치 반딧불 같은 그 불빛은 느리지만 끊임없이 모여들어 샘 속으로 녹아든다. 빛이 녹아드는 샘으로 천천히 다가온 호랑이 한 마리. 그 신비한 광경에서도 당당한 위엄을 뽐내던 호랑이는 약간의 목을 축인 후 크게 한 번 울음을 내지른다.

### 타이틀 옆 '명암 약수 전설'

사람이 아직 자연을 무서워하던 시절. 청주 고을 대머리에서 자그마한 잔치가 열렸다. 남들에 사는 박생원의 딸과 대머리의 한두한의 혼례였다. 두 사람의 행복을 비는 자리이니만큼 사람들은 마음껏 웃고 떠들었으며, 결혼 당사자들의 얼굴은 수줍음과 기대감 설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평소 성실하기로 평판이 자자했던 한두한은 열심히 일하며 부인을 보살폈고, 정숙하기로 소문난 박씨 부인은 남편을 잘 보필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자식이 없다는 것.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남편에게 미안했던 박씨 부인은 아들을 점지해 준다는 바위에 날마다 찾아가 자식을 점지해 달라 빌었다.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성을 드리던 부인은 몸이 약해져 병이 들었다. 부인의 병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했던 한서방은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에 근원이 마음에 있기에 차도가 있을 리 없었다. 자신의 약값을 대느냐 가세가 기우는 것을 느낀 부인은 끝내 약을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넓은 문이 열리고 약사발을 든 남자가 방으로 들어온다. 방 한 쪽에 누워있는 여인이 몸을 일으키자 남자는 약 한 수저 떠서 여인의 입으로 가져간다.

박씨 부인 : (입술에 닿은 약을 먹지 않으려 들며) 이제 먹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 (수저를 여인의 입술 틈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며) 지극정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지 않소. 조금만 더 참고 먹도록 해보시오. 곧 차도가 있을 게요.

박씨 부인 :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의 병세를 호전시키는데 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남편. 자신의 병간호를 하느냐 점차 수척해지는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던 부인은 끝내 남편에게 친정에서 요양하고 싶다는 말을 꺼낸다. 허나 남편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서 부인이 떠나려 하는 것이라 여겨 더욱 더 정성을 드려 부인의 간호에 힘 쏟는다. 하지만 부인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는 커녕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악화되기만 한다.

결국 혼자 힘으로 밥 한 술 넘기기조차 힘들어진 부인. 자신이 돌봐주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부인의 병을 악화시킨 것을 후회하며 두한은 장인과 상의하여 부인을 친정에 대려다

준다.

친부모님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부인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박생원의 집에 와 시주하기를 청한다. 시주하는 박생원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스님이 집안에 번고를 묻자 딸의 병이 낫질 않아 그렇다고 대답하는 박생원. 스님은 환자를 보기를 청한다

스님 : (조용히 합장하며)저는 천수사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 법정이라 합니다. 수행이 모자라는 탓에 큰 도움은 못되겠지만 혹여 도울 방도를 알 수 있을지 모르니 제가 한 번 환자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박생원 : 아이고 스님! 제가 청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드시지요.

서둘러 스님을 딸의 방으로 안내하는 박생원. 문을 열고 들어간 방안에는 양상해진 모습의 박씨 부인이 누워 얇은 숨을 몰아쉬고 있다.

스님 : (한동안 환자의 상태를 살피다 박생원을 향한다.)

박생원 : 어떻습니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 : 환자의 병은 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생원 : 마음이요? 딸애는 온 고을에서 다 알 정도로 금술 좋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딸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 : 그것이야 환자만이 알 일이겠지요. 어쨌든 지금 환자의 몸에는 탁기가 가득 차있습니다. 이것은 약으로는 나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서 백일 동안 정양(靜養)하며 몸의 탁기를 몰아내야 합니다.

박생원 :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정양시켜야 하겠습니까?

스님 : (한참을 뜸들이며 말하기 어려워한다. 조바심에 박생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려 할 때) 환자가 정양할 곳으로는 범발골이 좋겠습니다.

박생원 : (기겁하며)네에? 범발골이라고요?!

범발골은 상당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곳으로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밤낮으로 호랑이와 늑대가 출몰하는 곳이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박생원의 부인은 딸을 호랑이가 들끓는 범발골에 데려다 놓는 것은 호랑이 먹이로 주는 것이라면서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생원은 스님이 이야기했던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오랜 시간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몸이 아닌 다른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박생원은 사위 한서방을 불러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과의 생활에서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것에 크게 상심한 한서방은 장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부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없게 한 것을 사과한다.

생활할 도구들을 짊어지고 스님의 안내를 받아 산에 오르는 박생원과 부부. 산이 깊어질수록 울창해지는 수풀과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두려움에 떨던 그들 앞에 오프닝에

배경이 된 장소가 나타난다. 자그마한 공터와 호랑이를 닮은 바위. 조용하지만 힘차게 솟아오르는 샘가에 부인이 머물 자리를 마련한 박생원과 한서방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옮긴다. 그들이 멀어져가는 것을 보던 스님은 부인을 바라보며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스님 : 이곳은 신성한 샘으로 본디 산신(호랑이)에게만 허락된 장소니라. 밤이 깊어지면 산신이 나타나 목을 축이려 나타날 것인데, 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산신님께 비나이다.’를 세 번 외치면 네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네가 아프게 된 경위를 산신께 이르면 그가 처방을 알려줄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여라. 잊지 말거라. 반드시 ‘산신님께 비나이다.’를 세 번 외쳐야 하니라.

스님마저 내려가고 홀로 산속에 남겨진 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생각했다. 어찌다 이곳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을까. 자신은 그저 자식하나 얻어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찌다 병을 얻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었다. 떠나기 전 남편이 자신에게 사과했던 일이 생각났다. 자신의 바람이 그렇게 잘못되었던 것이었나를 끊임없이 생각하던 부인은 갑자기 들려온 호랑이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스님이 말했던 산신이 찾아온 것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를 세번 외치라던 스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만 막상 목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박씨 부인이 겁에 질려 있는 시간만큼 호랑이는 다가온다. 두려움이 주체할 수조차 없을 만큼 차오른 부인의 입에서 드디어 말이 터져나온다.

박씨 부인 :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산신님께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울음소리가 멈췄다. 분명히 밖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움직이는 기색은 없었다. 박씨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 스님이 알려주었던 다음 가르침을 떠올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박씨 부인 : 저는 남들에 사는 박씨 부인입니다. 원내 마음의 병을 얻어 죽어가던 중 천수사의 스님께서 이곳에서 100일간 정양하면 나올 수 있다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허락 없이 산신님의 땅에 밭을 디딘 것은 죄송하나 원내를 불쌍히 여기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요.

박씨 부인의 간청을 들어준 것인지 잠시간의 목 축이는 소리가 들려온 후 산신은 사라졌다. 그날 이후 부인과 호랑이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날이 지날수록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부인은 급기야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것저것 털어놓게 된다. 호랑이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다 가끔씩 꼬리로 여인을 건들기도 했는데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한 행동이었다. 사람들과는 불가능했던 대화로 마음이 편안해진 박씨 부인은 샘물의 맑은 기운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병이 치유되어 갔다.

마침내 약속한 100일이 지나고 여인은 한서방과 박생원의 마중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사람은 물론 마을사람들까지 모두 기쁨에 넘쳤다. 다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한 박씨 부인. 앞으로는 아무일도 없을 것 같았다. 더 이상 자식에 욕심내지도 않고 하늘이 점지해주시길 기

다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무렵. 마을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덕수 : 그 소문이 사실인가?

용호 : 아무렴. 사람의 목숨 가지고 누가 농을 한단 말ियो? 게다가 저 낮빛 좀 보소. 예

전에는 죽을 것처럼 파리하더니 이제는 열여덟 꽃띠 처녀처럼 밝고 빛나지 않고 있소.

덕수 : 그럼 진짜로 범밭골에 있는 물을 먹고 저리 나왔다는 거야?

박씨 부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덕거린다. 박씨 부인은 이따금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보고 쭈뼛거리리는 사람들을 힐끔 쳐다보고 자기 갈 길을 간다. 죽기 위해 범밭골에 갔던 박씨 부인이 죽지 않고 오히려 병이 나아서 왔다는 것은 소문이 되어 온 동네에 퍼진 상태였다. 그 소문이 사실인가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뒤에서 쭈뼛거리기 일쑤다. 이미 몇 번은 더 들었을 소문들을 곱씹는 사람들의 눈빛은 욕심에 얼룩져 있다.

덕수 : 그렇게 좋은 약수를 혼자만 먹다니…….

용호 : 안될 말이지. 아니 저 아플 때 우리가 도와준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자기들만 건강

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덕수 : 우리 이렇게 아니라 그 약수가 어디서 나는 건지 찾아가서 알아냅시다.

박씨 부인의 집에 찾아가 샘터의 위치를 알아낸 마을 사람들은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영천(靈泉) 약수(藥水)임이 분명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들게 된다. 원래 주인이었던 산신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에 박씨 부인이 사람들에게 ‘그 물은 원래 산신께서 드시던 물이니 조심히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샘터에 오르는 것을 만류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물을 한날 금수와 같이 마실 수 없다며 급기야 샘터에서 호랑이를 쫓아내기로 결심한다.

고요하던 샘터에 울타리가 쳐지고, 산신을 쫓기 위해 하루 종일 장작불이 타오르게 된다. 농기구로 무장한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매일같이 샘터에 상주하게 되었다. 얼마 안 있다 사람들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호랑이는 열흘이 지나도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무력행사를 하게 되고, 샘터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다.

다급한 발걸음으로 길을 오르던 박씨 부인이 거친 호흡을 다스리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멈추고 앞을 올려다본다.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길 위를 주욱 올라가다보면 그 중간 즈음에 절 하나가 보인다. 군데군데 붉은 칠이 벗겨져 있는 낡은 기둥 위로 ‘천수사’ 라고 적힌 현판이 보이며,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박씨 부인의 앞에 따뜻한 차가 놓인다. 박씨 부인은 차를 마실 시간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박씨 부인의 마음은 다급하기만 하다.

스님 : 본디 명암약수는 청주의 맑은 기운이 모여 만들어진 샘이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 남을 위한 배려, 노인에 대한 공경, 아이들의 순진함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신성한 샘을 만든 것. 그런데 그 샘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니, 맑은 기운이 탁해질 수밖에.

박씨 부인 : 맑은 기운이 탁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무의미한 싸움을 말릴 방도는 없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스님.

스님 : 맑은 기운이 모여 샘을 만들었으니 맑은 기운이 없으면 샘이 말라버리겠지.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대로 행해지는 것. 무지한 중이 끼어든다고 될 일은 아니다.

박씨 부인의 표정은 착잡해진다. 스님은 다시 한 번 차를 권하고 박씨 부인은 마지못해 찻잔을 들고 입에 머금으려다가 잠시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바깥을 바라본다. 다시 한 번 들려오는 풍경소리.

범발굴은 이제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다. 어디선가 나는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과 동물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엉켜 범발굴은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다.

그것에 좀 먹어가듯 샘을 향하던 빛들이 그곳에 채 다다르기도 전에 꺼지거나 샘에 도착해도 그 빛이 희미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다. 빛들이 간신히 모여 샘으로 스며들지만 샘은 이제 거의 흙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제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 또한 점점 얇아지고 누군가가 물줄기를 막은 것처럼 딱 끊겨버린 물소리. 바위틈에서 더 이상 물줄기는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줄기와 빛들이 모인 샘도 꺼져가듯이 물들도 사라진다.

서서히 드러나는 흙바닥. 언제 물기가 있었냐는 듯 바닥 표면이 건조하기만 하다.

동물들의 다가올 수 없게 샘의 주변을 지키고 있던 한 남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길게 하품을 하다가 목이 마른 듯 허리춤을 뒤적거리다가 이내 몸을 샘 쪽으로 돌린다.

덕수 : 이,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함에 소리부터 버럭 지른 남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른 샘에 손을 대본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물이 가득 하던 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바짝 말라 있었다. 흙바닥을 내보이는 샘에서 물을 퍼는 시늉을 해도 손바닥에 들어오는 건 시원한 물이 아닌 버석한 흙 뿐. 남자의 외침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던 동물들도 그쪽으로 관심을 돌린다.

덕수 : 샘이.. 샘이.. 샘이 말랐다고!!

절규하듯 소리를 지른다. 남자의 말에 모두들 놀란 표정을 한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샘으로 시선을 돌린다.

샘이 말랐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다. 스님에게 좋은 방도를 듣고 오지 못한 박씨 부인 또한 그 소문을 들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박씨 부인은 스님이 한 말을 곱씹으며 입술을 꼭 깨문다. 그것이 하늘이 정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싸움이 끝나버린 범발골의 모습은 처참하다. 군데군데 부러진 울타리들과 연장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며 불을 태우는 바람에 곳곳이 재로 얼룩져 있다. 박씨 부인과 한서방은 범발골 초입에 서서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본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거 같아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 하는 박씨 부인의 손을 한서방이 잡아주며 앞으로 이끈다. 박씨 부인도 한서방의 손길을 따른다.

불에 타버린 자리를 정리하는 박씨 부인과 바닥에 흩어진 자재들을 치우는 한서방. 둘은 매일 범발골을 찾아와 싸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동물들도 나중에는 박씨 부인과 한서방을 따라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박씨 부인과 한서방이 범발골에 드나든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명암약수에 물이 솟았냐고 묻는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스님에게 들었던 말을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박씨 부인 : 명암약수는 청주의 맑은 기운이 모여 만들어진 신성한 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암약수를 차지하고픈 욕심으로 인해 맑은 기운이 사라져 샘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서로 그 샘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는다면 아마.. 다시 맑은 기운이 모여 명암약수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요?

박씨 부인의 말에 사람들이 부끄러운 얼굴을 한다. 박씨 부인은 말을 끝내자마자 할 일이 있다는 듯 다시 범발골로 향한다. 매일 같이 범발골을 치우고 오는 박씨 부인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흩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박씨 부인과 한서방, 동물들이 범발골을 치우고 있을 때 즈음 호미를 든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난다. 머쓱한 얼굴로 걸어오던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 곳곳에 자리를 잡아 같이 정리를 시작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는 한 순간이지만 그곳을 전처럼 복구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싸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진 것처럼 그 어떤 생명들도 깃들지 못 했다.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흙.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갈라져버린 명암약수의 흠바닥. 동물들은 명암약수 근처를 어슬렁거린다. 정리가 끝난 사람들은 도구를 챙겨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게 수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그리고 한 계절을 돌아 다시 봄이 온다. 따뜻한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나른한 햇살이 범발골을 비춘다.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던 어두운 흙 위에 엄지손톱 크기의 푸릇한 새싹이 몇 개 돋아나있다.

아무리 정리했다지만 싸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범발골. 그 위로 밝은 햇살이 내려앉는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 인적이 없었던 범발골에 아낙네와 소녀들이 쪼그려 앉아 냉이를 캐고 있다. 풀이 적어 냉이를 많이 못 캔 소녀가 울상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호랑이 한 마리가 서성이다가 소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내려 앞발로 땅을 문지르고 사라진다. 소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내달려 호랑이가 문질렀던 땅을 보고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푸릇하게 나 있는 냉이. 그것을 뽑기 전 소녀는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고맙습니다, 산신님.’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냉이를 캐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멀리 숨어서 바라보는 호랑이. 그때 조그만 빛이 반딧불처럼 날아 말라버린 샘으로 스며든다.

마른 흙바닥이 비가 왔을 때 젖은 지면처럼 짙어지더니 이내 물방울들이 퐁퐁퐁 올라온다. 그리고 점점 차올라 예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